

문화정책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로컬로 턴
vol. 27 / 2024 Winter

지역의
도전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1995.7

이슈

페이퍼

이번 호는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구 정책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사례, 지역에서 이루어진 창업 활동과
로컬의 가치를 다룬 글들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의 면모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좌담회와
창업 정책 연구를 통해
부산이 청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의 도시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행인 이미연
편집인 박소윤
편집위원 김선영 김주현 장혜원 이소민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24. 12. 4.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칼럼	
지방시대,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길을 열다 이미연 /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04
이슈	
1. 부산광역시 인구정책과 문화예술 김민경 /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07
2. 지속가능한 지역 공연예술 축제 - 부산국제춤마켓 신은주 / 부산국제춤마켓 예술감독	10
3. 클래식, 관객과의 변주 문화예술 스타트업 샤콘느 윤보영 / 문화예술 스타트업 샤콘느 대표	13
4. 로컬 to 로컬 오동욱 / (주)바림 대표	17
사람과 현장	
청년집담회 - 부산,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는가 페레즈 카르바할 마리아 카밀라 / 직장인 주라에바 아이샤 타키르 키지 / 학부생 이소이 / 직장인 이소민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9
연구보고서 훑아보기	
느리되 함께 가는 지역문화 창업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23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6

지방시대,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길을 열다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수도권이 블랙홀이 되어 사람, 돈, 일자리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요즘만큼 여러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는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수도권 중심주의 아래 특히 지역 청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은 노인과 빈집만 남아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상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을 더욱 간절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으로 활동하며 그간 만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지역을 새롭게 만나고 있다. 한결같은 점은 지역 어디나 감소와 소멸, 위축, 격차, 불균형을 넘어 지역이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을 삶터로 지키기 위해 눈물겹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에 지역문화 활성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제 문화는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로 생활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추동하는 주요한 힘이 되고 있다.

올해 방문했던 곳 중 단연 인상적인 지역은 신안군이다. 신안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22배이지만 인구는 38,124명에 불과하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41%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1위이다. 1,025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유인도는 76개이며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신안군을 1004섬으로 명명하고 1섬 1색깔 브랜딩을 추진한 박우량 군수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통해 신안의 기적을 만들어내고자 했다고 말한다. 보라색으로 물결치는 퍼플섬(반월·박지도)의 인구는 136명(2022년 하반기 기준)에 불과하지만 UNWTO 2021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지정되고 문체부 한국 관광의 별 '본상'(2021)을 수상하며 2023년 39만 1천 명이 방문하는 지역이 되었다.

지방시대 기획단을 맞이하는 공무원들의 복장은 모두 산뜻한 보라색이었으며 군수가 직접 공휴일도 마다 않고 신안의 아름다움을 열정적으로 설파하며 섬 곳곳을 안내하는 모습에서 정말 마

음으로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순례자의 섬(기점·소악도), 맨드라미의 섬(병풍도), 수국·팬나무의 섬(도초도) 등 인구수가 적은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다. 꿈을 섬에 입히고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놀라운 것은 안좌도 플로팅 뮤지엄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 야나키 유키노리, 비금도 바다의 미술관에 전시되는 세계적 작가 안토니 고티의 작품을 우리가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신안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안군 정책 추진의 핵심은 주민 역량 강화, 주민의식 고취,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 함양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지역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최고 수준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조성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처음으로 5년 주기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지정되었다. 가장 많은 지역이 포함된 곳은 경북, 전남, 강원이다. 경북과 전남은 16개의 시군이 포함되었으며 강원의 경우 11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가 지정되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된 인구감소 관심지역 안에 부산의 중구와 금정구가 포함되었다. 인구감소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8가지를 근거로 삼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소멸기금 활용 등을 통해 지역생존을 위한 사활을 걸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방문했던 영암군에서 '강해영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었다. 강해영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위기를 겪는 이웃한 세 지자체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이 주인공이다. 인구 33,000명 강진군, 인구 65,000명 해남군, 인구 53,000명 영암군이 '뭉쳐야 산다'를 기치로 연결, 연계, 협력 전략을 세우고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창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년 동안 구상해서 현재 실행중이며 세 지역 모두 지역 문화관광재단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시 세 지역이 협력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8억 5천(3억/3억/2억5천)으로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어버스 진행, 당일 시티투어 상품 운영 등 생활인구 확대의 패턴을 과감하게 바꾸는 전략을 진행중이다. 영암은 '5만 2천 혁신디자이너와 함께' 라는 브랜딩으로 군민 모두가 디자인하는 지역 전략을 내세우고, 해남은 '군이 회사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간기업 혁신을 이끌어내고 마을기업 '가와바전원플라자'를 설립해서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사업 연계로 프리미엄 특산물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강해영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이 각자도생을 하기보다 행정적, 경제적, 자원적, 문화적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관광시장 및 인프라, 시스템을 연결하며 개별적인 군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협력과 더불어 선의의 경쟁 속에서 지역소멸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프로젝트가 좌초하지 않고 더욱 공고한 연결과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부산광역시 인구정책과 문화예술

김민경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인구감소가 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본격 도입되었고, 이를 토대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 주민등록인구, 2) 체류인구, 3) 외국인등록인구로 유형화된다. 주민등록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체류인구는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인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과 법·제도적 기반의 확충은 지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정주인구 증가에서 벗어나 비정주인구 유입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생활인구 :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인구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인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문화도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다. 2019년 첫 선정을 시작으로 그간 4차에 걸쳐 총 24개의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로 도시를 바꾸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중 1차 문화도시 7곳(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은 5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 1항을 근거로 한 법정도시이다.

최근 24개 문화도시 중 인구감소 지역 4개 지자체(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전북 고창군, 강원 영월군)의 사업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일구고 있는 곳이 영월이다. 강원 영월군은 인구 37,000명, 고령화 비율 34.6%, 재정자립도 13.48%으로 폐광으로 인해 일자리 정주여건이 취약하고 지역인구 유출 가속화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지역이다. 굵이굵이 태백산맥과 동강에 둘러싸인 영월은 예로부터 첩첩산중, 육지고 도라 불리던 산촌이며 근현대사 속 영월은 석탄광산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도시화를 이끈 중추 도시로 지하 막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꿈을 캐내려고 노력한 광부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도시였다. 폐광으로 삶의 리듬이 무너진 영월은 단기간에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도시 활력이 확연히 감소되었다. 하지만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일상의 삶을 문화로 사람·활력·공간 충전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석탄광산에서 문화광산으로’를 내걸고 영월군은 지역소멸 대응형 문화도시 모델로써 문화정책이 도시정책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민 참여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과 공공분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중이다. 원스톱 문화도시 정책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여성가족과까지 전방위적으로 타 부처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부분은 문화정책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 과제 실행에 있어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문화도시 사업 대비 권역별 성장과 실질적 발전 성과를 강조하는 광역형 선도모델로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총 13곳이 지정되어 2024년 예비사업을 실행 중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적 도시브랜드 창출로 도시의 경제적 발전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별 3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원)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기존 문화도시 대비 연간 지원액은 거의 2배가 되는 셈이다. 기존 문화도시와 다른 점은 지정도시 전체 및 인근권역을 사업범위로 하면서 인근 지역주민·예술인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광역 연계형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권역별 문화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타 특구와의 연계방안을 찾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화로 열어가야 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시민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 문화정책이 도시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

그동안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출산장려정책 등을 통한 주민등록인구 증가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자리, 문화예술, 도시계획, 교육 등을 포괄하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1년 발표된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또한 이러한 범위 확장 및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취업, 창업, 기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일자리정책, 주거, 복지, 문화, 도시계획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임신·출산, 보육, 교육을 포함하는 출산지원 정책과 함께 인구정책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시행중인 대다수의 인구정책 사업들 또한 저출생 지원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등록인구의 유출은 막고, 체류인구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간 접점은?

문화예술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의 체류 및 정주 욕구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인구정책과의 긴밀한 접점을 형성한다. 문화예술이 정주와 이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자리, 교육여건 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바 있다(Parkinson et al., 2019;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9; 하수정 외,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지스타 2021 행사운영’,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부산불꽃 축제’ 등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및 행사를 인구정책과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사업 중 문화예술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제1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민들의 문화향유증진과 인구 유출 완화를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는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시범실시 이후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30~40대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며, 2024년부터 실시된 ‘부산 청년만원문화패스’는 청년인구 유출완화 및 유입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향유 지원이나 공간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화예술의 인구 유출 완화와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에서 기대하는 문화여건 개선을 경험할 수 있는 장르적 다양성의 강화와 질적인 측면의 향상이기 때문이다(김민경, 2024; 김세현 외, 2023). 결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포함하는 문화전문인력과 관련 시설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둔 예술생태계의 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다양성 강화와 질적인 측면의 향상을 이루어낼 수 없다. 더불어, 소상공인 및 산업단지 중심으로 공급되는 부산시 일자리 여건을 고려한 문화향유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 문화향유와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접점확대를 위한 과제

2026년부터 적용될 ‘제2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문화시설 운영이 체류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등 부산의 주요 공공 문화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2025년 개관 예정인 부산국제아트센터까지도 주민등록인구 유출 완화 및 체류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는 주요 거점 시설로 역할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연계 실행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를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도 요구된다. 즉,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간 접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접근은 문화예술의 교육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 창출을 강화하는 전략임과 동시에 예술적 활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관객으로서 시민들이 찾지 않는 문화시설은 더 이상 미래가 없기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는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주요 거점인 문화시설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에 문화예술계도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의 주체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관객개발 전략, 운영 계획 등의 수립 시 단순히 주민등록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비정주 인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급하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기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니즈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있지 않다.

부산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다양성 및 고유성의 강화로 서울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문화적 매력을 형성할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때 문화예술은 부산으로의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Parkinson, A. et al. (2019), The Value of Arts and Culture in Place-shaping. Wavehill and Arts Council England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9), 「The Arts in Neighborhood Choic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하수정 외(2021),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총괄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민경(2024), 지역소멸시대, 문화적 대응전략 BDI정책포커스, 부산연구원
김세현 외(2023), 「인구위기에 대한 부울경 지역 공동의 대응: 사회문화요인을 중심으로」. 부산연구원

지속가능한 지역 공연예술 축제 - 부산국제춤마켓

신은주
부산국제춤마켓 예술감독

2008년 독일 탄츠 매세 무용박람회에 나의 작품이 선정되어 공연과 전시를 한 후, 부산에서 이와 같은 국제교류 창구를 꿈꾸었다. ‘부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무모한 바람으로 부산국제춤마켓(BIDAM)은 탄생되었다. 이렇게 2024년의 BIDAM이 15회째 개최되었으니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15년간의 프로그램은 국내외 작품을 소개하는 포커스, 레지던시를 통한 공동협력작업 커넥션,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경연프로그램, 대한민국청춤챌린지, 예술가와 일반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무용 필름, B미팅, 라운드테이블-세미나 등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부산의 3~4개 대 중소 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금정문화회관과는 2022년부터 공동 주치를 해오면서 지역의 축제로서 다양한 관객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활동의 장을 넓혀 주었다.

부산국제춤마켓의 형성과 역할

부산국제춤마켓은 2010년 춤 전용공간인 ‘춤공간 SHIN’을 개관하면서 시작했다. 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며, 과정이라는 시간을 형상화해낸다. 춤 전용공간 SHIN은 이처럼 의미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축제를 시작하였다.

부산국제춤마켓은 설립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국제 무용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매년 가을, 6~8개국에서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며, 국내외 델리게이트들과의 네트워킹과 유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과 세계를 연결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 사무국을 꾸리면서 축제의 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 헝가리, 프랑스, 일본, 쿠바, 파나마, 멕시코로부터 초청받으면서, 부산과 세계, 예술가와 예술가, 해외 기획자들과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관객과 예술의 연결 플랫폼으로의 성장

부산국제춤마켓은 캐나다, 스위스, 헝가리 등 세계적인 무용단들의 공연을 유치해왔고, 국제 예술가들과의 공동 협업 등으로 입지를 다져 왔다. 지난 3년간 총 20개국에서 100여 명의 델리게이트들이 참가해 지역 예술가들 및 청년 안무가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등으로 초청되어 공연투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 공연장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매년 2,000여명의 관객들을 맞이하는 국제 무용축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금정문화회관과의 협력지원을 통해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산공연예술마켓(BPAM)과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백양문화예술회관 블랙박스 공연장을 새롭게 활용하여 장에/비장에 워크숍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였다.

청년 안무가 육성을 위한 중장기 연대 구축

‘대한민국청춤챌린지’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기획되었다. 당시에는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방식에서는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했다.

인큐베이션의 다른 방식을 도입하였다. 한 번도 발표된 적 없는 작품을 공모로 선정한 다음, 경연의 형식으로 공연 후 한 팀을 선정하였다. 신작을 발표하여 그 해 챌린저로 선정이 되면, 이후 국내외 전문가 멘토의 피드백을 받고 다음 해에 보다 성숙된 작품으로 공식 프로그램의 작품으로 출품하는 창작과정의 지원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관객들의 반응과 관심은 대단하였다. 공연 종료 후, 청춤챌린지 참가팀들의 평가 자리에는 해외 델리게이트들이 동행하여 그들을 더욱 격려하고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이 즉석에서 벌어지기도 하였다.

청년 안무가로서 해외 무대 진출과 역량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멘토링의 다각화 및 해외 인턴십 연계를 위해 플랫폼 간의 중장기 협력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독일 브레멘극장과 연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와 협력 모델은 향후 더 많은 글로벌 청년 예술가 간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예술의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용계와 청년 예술가들이 더욱 활발하게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가능한 국제 교류와 예술적 성장을 위한 제언

- ① **연속성과 지속성:**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가능한 국제 교류와 예술적 성장은 단계별로 기획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아시아는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문화적 유사성도 있으며, 동시에 국제 교류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적합해 각국 예술가들이 서로의 예술적 특성을 발견하고 상호 소통하여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 협력 모델은 향후 더 많은 아시아권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② **실험적인 창제작 환경 구축:** 자유로운 창작과 교류 경험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청년 예술가들이 다양한 예술적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여 스스로 자신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창제작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신진예술가들의 보다 실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 꼭 필요하다.
- ③ **플랫폼 참여 기회 확대와 경쟁력 강화:** 세계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시각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크고 작은 플랫폼에 참여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작품을 발전시키는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플랫폼에 참여하는 국제무용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작품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고 나아가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간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이제는 청년 예술가들의 성장과 국제무대에서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보다 더 견고한 창작기반을 필요로 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과 창작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러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도전을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과 행정 그리고 실행이 되는 환경이 현장에서 활성화 되어야 하고 반드시 구축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

미래의 한국은 열린 국가이자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특색 있고 전문화된 도시들로 채워질 것이다. 교육 중심의 도시가 된다면 교육 부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가 된다면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도시가 된다는 의미이다. 부산이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은 뚜렷하다. 세계적인 해양 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를 꿈꾼다. 부산은 천혜의 환경 자원이 갖춰져 있는 곳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 2의 도시이자 국제향이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건설될 세계적 규모의 공항으로 인해 국제적 교통의 허브로도 도약할 것이다. 즉, 더 많은 세계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문화예술의 도시인 부산으로 모든 인종들과 민족들이 예술과 문화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들 것이다.

부산이라는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젊은 예술인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이들을 한데 모으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에 정착할 아무런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인프라라는 의미는 단순한 극장이나 공연장 등의 건물이나 학교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유형의 요소들이지만 진정한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인적 자원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클래식, 관객과의 변주
문화예술 스타트업 샤콘느

윤보영

문화예술 스타트업 샤콘느 대표

변주곡이란?

클래식 음악, 특히 고전 음악을 듣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형식이 있다. 바로 변주곡(Variations)이다.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를 기반으로 리듬, 템포, 조성, 화음 등을 바꾸어 새로운 느낌을 주지만, 원래의 주제가 잘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인 바흐 '샤콘느'의 주제는 8마디밖에 되지 않지만, 총 32번의 변주를 이끌어내면서 15분이 넘는 바이올린의 대곡을 완성하였다.

요리사의 변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예능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 요리사 '백수저'뿐만 아니라, 제작진이 재야의 고수로 분류한 '흑수저' 요리사 중에서도 '철가방 요리사', '급식대가'부터 '비빔대왕', 그리고 만화책으로 독학으로 요리를 배운 요리사까지 기존 요리 서바이벌에서 다뤘던 미식의 변주가 펼쳐졌다.

필자의 가장 '최애' 변주 셰프는 두부 요리로써 최고의 변주로 이목을 끌었던 '에드워드 리'였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화차는 혼합팀전에서 스테이크가 '질기다'라는 손님들의 평가를 듣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에드워드 리 셰프도 멋졌지만 이러한 상황을 심사위원이자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대표 백종원 대표가 직접 먹방러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어보는 장면은 충격적일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평소 백종원씨가 골목식당에서 가게 사장님들에게 "손님들이 돈 주고 산 음식을 이렇게 남겨서 그냥 가는데 단 한 번도 안먹어보냐"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요리의 완성은 소비자가 먹는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잔반이 왜 남겨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클래식 공연의 잔반, 빅데이터 KOPIS

클래식 음악 산업의 잔반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산업의 통합전산망인 KOPIS를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서양음악(클래식) 공연으로는 부산 공연이 6.5%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전국 지역별 전체 공연실적은 2위인 것에 반해 서양음악 장르별 티켓 판매액으로는 1위 서울 73.7%, 2위 대구 6.8%에 비하면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다.

2023년 지역/장르별 티켓판매액

(단위 : 천원)

구분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무용(서양/한국)		
	2023년	비중(%)	2023년	비중(%)	2023년	비중(%)	2023년	비중(%)	2023년	비중(%)	
시	서울	50,375,421	87.7%	347,264,654	83.7%	58,460,142	73.7%	2,602,068	74.8%	13,791,927	83.8%
	부산	1,416,000	2.5%	35,549,653	8.6%	5,162,444	6.5%	336,992	9.7%	1,062,120	6.5%
	대구	1,967,493	3.4%	15,275,191	3.7%	5,396,657	6.8%	67,187	1.9%	341,312	2.1%
	대전	1,061,253	1.8%	5,363,950	1.3%	2,220,037	2.8%	89,560	2.6%	575,604	3.5%
	광주	1,095,239	1.9%	3,283,323	0.8%	2,155,994	2.7%	187,475	5.4%	262,706	1.6%
	세종	407,554	0.7%	1,546,537	0.4%	979,646	1.2%	36,298	1.0%	227,862	1.4%
	울산	760,039	1.3%	2,372,211	0.6%	921,182	1.2%	60,671	1.7%	141,275	0.9%
	인천	389,716	0.7%	4,018,283	1.0%	4,078,777	5.1%	98,580	2.8%	61,028	0.4%
	소계	57,472,715	100.0%	414,673,802	100.0%	79,374,879	100.0%	3,478,831	100.0%	16,463,834	100.0%

출처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클래식 공연의 ‘백수저’ 스타 연주자

창업한 이래, 필자가 시작해온 ㈜샤콘느의 키즈 콘서트는 재방문 고객 데이터가 네이버 예약 기준 현재 20,24%로 분석되고 있다. 아티스트들이 좋은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세프들이 주방이 아닌 쓰레기통으로 뛰쳐나와 소비자의 잔반인 어떠한 통계로 예매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2023년 지난해 클래식 장르의 티켓 예매수는 308만 3521매를 기록, 전년보다 24.9% 늘었다. 같은 기간 티켓판매액 역시 999억 원으로 47.2% 급증했다. 전체 공연시장의 티켓예매수와 티켓판매액 증가율이 각각 14.3%, 23.5%라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장이다.

지난해 최고 티켓 매출을 낸 클래식 공연은 <키릴 페트렌코 & 베를린 필하모닉>이다. 베를린 필이 6년 만에 내한한 데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해 주목받았다. 당시 베를린 필 뿐 아니라 빈 필, 네덜란드 명문인 로열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까지 같은 시기에 내한했지만 베를린 필 인 기엔 미치지 못했다. 이 공연은 티켓 가격이 최고가 기준 55만 원에 달했는데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사이트가 다운되고, 정상화 후 2분만에 매진될 정도로 관객이 몰렸다.

스타연주자의 압도적인 티켓 파워로 ‘백수저’의 힘을 보여줬다면, 클래식 공연의 ‘흑수저’는 어디에 있는 걸까?

2023년 총결산 공연 특성별 티켓판매 현황 및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공연건수 (건)	비중 (%)	공연회차 (회)	비중 (%)	티켓예매수 (매)	비중 (%)	티켓판매액 (원)	비중 (%)	공연 1건당 평균 티켓판매액(원)	티켓 1매당 평균 티켓판매액(원)
아동 공연	3,308 (▲0.8)	16.2	28,524 (▲28.2)	24.5	3,505,445 (▲18.1)	16.7	81,176,949,986 (▲11.1)	6.4	24,539,586 (▲10.2)	23,157 (▼5.9)
내한 공연	813 (▲168.3)	4.0	1,053 (▲5.7)	1.3	1,429,253 (▲103.0)	6.8	135,097,922,132 (▲80.9)	10.6	166,172,106 (▼32.6)	94,523 (▼10.9)
대학로 공연	1,217 (▲9.0)	6.0	46,159 (▲19.1)	39.6	3,150,346 (▲0.9)	15.0	93,691,383,052 (▲26.8)	7.4	76,985,524 (▲16.4)	29,740 (▲25.7)
오픈런	226 (▼79.6)	1.1	41,327 (▲27.6)	35.4	1,687,298 (▼15.6)	8.0	32,366,862,269 (▲11.9)	2.5	143,216,205 (▲448.1)	19,183 (▲32.7)
축제	1,671 (▲7.5)	8.2	3,640 (▼8.0)	3.1	940,456 (▲1.7)	4.5	46,109,156,210 (▲10.4)	3.6	27,593,750 (▲2.7)	49,029 (▲8.6)

※ 공연 특성의 경우, 여러 특성에 포함되는 작품들로 인해 중복값이 존재하며(예. 아동 공연이면서 대학로 공연인 경우), 5개 특성(아동, 내한, 대학로, 오픈런, 축제)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작품도 존재하므로, 비중 합계가 100%가 될 수 없음.

출처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클래식 공연의 재야 고수 ‘흑수저’ 아동 공연의 성장

2023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체 티켓판매 현황에서 살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공연의 동향이 있다. 바로 아동 공연이다. 전체 공연회차의 24.5% 및 티켓 예매수 16.7%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 공연은 공연 티켓 예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연령층 2030(74%), 성별로는 여성 예매자(86.5%)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애니메이션이나 유명 캐릭터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차지하고 있어, 공연 내용이 친숙하고 관객 유입이 용이한 형태이다.

모차르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종합 예술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45일간 연주회를 하면서 경제효과만 2,484억 원을 창출해내는 대표적인 세계음악축제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자랑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다. 공연 문턱을 낮춰 미래 관객을 길러낸다. 축제 기간 금요일 오전 10시 카피텔 광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발레, 드라마가 상영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9~17세를 대상으로 오페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오페라 캠프’도 개최한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페라 연극 콘서트 티켓을 최대 90% 할인 판매한다. 가족 단위 관객을 끌어들이는 비결이기도 하다. 1920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아동 참여를 높여 미래 관객을 길러내면서 예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를 모두 잡은 대표적인 축제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어린이 오페라
출처 : <https://v.daum.net/v/20240808151800609>



(주)사콘느 모차르트 마술피리

다양한 변주는 새로운 주제를 창조

간간하기로 유명했던 ‘안성재 셰프’ 심사위원이 급식대가의 음식을 먹어보는 장면에서 “오늘의 급식 메뉴는 무엇인가요?”하는 장면은 많은 화제를 낳았다. 또한 ‘흑백요리사’ 음식 중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는 의외로 급식대가의 음식을 꼽았다. 급식대가의 음식이 과거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클래식 공연의 ‘파인다이닝’을 꼽자면 스타연주자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공연들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관객들의 니즈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며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바탕으로 하는 변주들이 많이 연주되어야 하고, 어린이 관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미래에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미래 관객을 길러야 한다.

필자가 제작한 어린이 오페라 뮤지컬 10편 중 가장 애착가는 오페라는 바로 ‘모차르트 마술피리’이다. 주인공 타미노 왕자가 시련을 이겨내며 행복한 결말을 얻는 흔해 빠진 해피엔딩의 스토리이지만, 생각보다 그 시련의 문턱에서 이겨내는 경우보다 그 시련을 피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관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분석하며 공연하는건 오늘 공연기획자들의 숙제이자,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시련이다.

‘두부’ 본연 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야 했던 ‘흑백요리사’의 시련처럼, 오늘날 다양한 기획자들이 ‘클래식 음악’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변주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기대하여 본다.

로컬 to 로컬

오동욱

(주)바림 대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2020년, 필자는 국제신문과 함께 부산을 떠나야만 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청년 졸업 에세이>를 공동 제작한 경험이 있다. 이 작품은 부산에서 성장했지만 지역의 한계 속에서 더 넓은 기회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청년 세대의 목소리와 그 속에 담긴 애환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사라져 가는 청년 인구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현상들은 단순히 개인의 아쉬움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균열을 예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부산의 인구 감소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청년층의 유출은 부산을 전국 광역시 중 최초의 고령사회로 밀어 넣고 있다. 현 세대의 부산지역 청년들은 ‘탈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고향을 떠나고 있다. 많은 청년이 고향에 남고자 했으나, 지역 내 일자리와 성장 기회가 부족해 떠나야만 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필자와 같은 30대 중반 세대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미 절반 이상이 부산을 떠난 상태이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쇠퇴 속에 부산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자금을 투입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데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역할

로컬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 시대에 따라 한 지역을 다방면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도시재생’, ‘문화 재생’, ‘로컬크리에이터’, ‘글로컬’ 등 다양한 단어들을 주목하였고, 이는 지역이라는 단어 안에서 큰 뜻을 같이한다. 로컬크리에이터 역시 ‘지역 예술가’, ‘지역 소상공인’, ‘지역 활동가’ 등을 포함한 뚜렷한 경계가 없는 포괄적인 단어로 지칭되고 있다. 현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는 창의적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지역 내 자원과 고유한 문화를 창의적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작 활동가를 의미한다. 이들은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고유한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역의 전통산업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하거나, 지역 예술과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며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이란 장르는 현재 로컬크리에이터라는 단어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다. 문화예술 도시재생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들과 지역 상생의 표본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 나오시마 섬의 사례 : 예술을 통한 지역변화와 상생의 모델

나오시마 섬은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에 위치한, 세토 내해의 동쪽에 자리 잡은 작은 섬이다. 이곳은 에도 시대에 제염업과 해운업으로 번영을 누렸으며, 미쓰비시 광업이 제련소를 설치하면서 또 한 차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주력 산업의 변화로 지역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섬은 점차 활력을 잃어갔다. 황폐해져 가던 이 섬은 1986년, 일본의 출판사인 베네세 그룹의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변화를 모색하며 재탄생하기 시작했다. 베네세 그룹은 나오시마 섬의 자연환경과 전통적 배경을 존중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안도 다다오를 기점으로 건축물을 통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현재는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예술의 섬'으로 변모하였다.

나오시마 섬이 일본의 대표적인 '예술의 섬'으로 성장한 원동력은 단지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운 건축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꾸준히 이어진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이야말로 나오시마 섬의 변화를 이끈 핵심 요소다. 지자체, 주민, 예술가들의 오랜 논의와 협업을 통해 단발적 이벤트를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가 창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나오시마 섬은 현재까지도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유지하며 문화예술산업으로서의 경제 성장력을 바탕으로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대만 보얼 예술 특구 : 지역 상권과 로컬크리에이터의 협력 모델

대만 가오슝시에 위치한 보얼 예술특수(Bo-Pi-Liao)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과거 항만시설로 사용되었던 창고 지역이었으나, 2002년 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문화예술 중심지로 변모했다. 버려졌던 창고와 항만 부지들은 현대적인 예술 공간과 복합 문화 시설로 탈바꿈하여, 지역 상권과 관광객을 유입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얼 예술특구의 성공적인 변화는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 간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다. 초기에는 주로 예술가들의 전시회와 공연을 통해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상점과 카페, 공예품 매장이 들어서면서 활발한 상업 지구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은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현지 예술가들이 상인들과 함께 특색 있는 제품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상생의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이 지역은 단순한 전시와 공연 공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협업하여 지역 특산물과 수공예품을 활용한 예술 상품을 제작하는 접근 방식은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로컬크리에이터, 문화예술로 여는 지역 재생의 씨앗

지방 소멸 위기는 대부분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은 강력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해외의 사례들처럼, 단순한 개인의 활동과 의지가 아닌 지역민들 대부분이 로컬크리에이터로서의 의지를 토대로 문화예술이란 매개체와 협력하여 지역을 개발한다면, 단순한 경제적 성장 수단을 넘어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청 / 년 / 집 / 담 / 회

부산,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는가

- 인터뷰이 1) 페레스 카르바할 마리아 카밀라(Perez Carvajal Maria Camila, 직장인)
2) 주라예바 아이샤 타키르 키지(Djuraeva Aysha Takhir Kizi, 학생)
3) 이소이(직장인)

인터뷰어 이소민(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최근 부산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들이 바라보는 부산의 매력과 기회, 개선점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청년 집담회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 지역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청년의 시각에서 부산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자신들이 경험한 부산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도시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들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부산이 청년들에게 진정한 기회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자기소개와 함께 부산에서 살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카밀라 저는 콜롬비아에서 온 카밀라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을 내려온 지 2년 정도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2의 도시인 부산은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강점이 큰 도시라고 생각해서 내려왔습니다.

소이 학부생 기간을 제외하고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 현재까지 부산에서 살고 있는 이소이라고 합니다. 서울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도 그에 준하는 즐길거리는 모두 다 있는 부산이 좋아 살고 있으며, 공연기획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아이사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이사이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1년 정도 되었으며, 부산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의 사투리 때문에 서울이 아닌 부산에 오게 됐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밀라 저는 서울에서 직장과 집을 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을 내려왔는데, 부산의 매력에 빠져 서울로 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계약금 냈던 집까지 취소하면서 부산에서 다시 직장과 집을 구해 살고 있을 정도로 부산이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마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부산이나 김해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구사하는 사투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거칠지만 그 속에 더 따뜻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사 부산 사투리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이 화난 것 같다고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이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정주민으로서 이렇게 부산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보면, 날 것 그 자체로의 진정한 대한민국을 보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하. 또 나날이 방문하는 외국인 인이 증가하는 것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카밀라 감촌문화마을을 가보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 놓았지만, 실상은 피난민들이 살아온 아픈 터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이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도 역사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산은 무엇이든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 도시 자체가 인상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사 아까 처음 언급한 것과 중복되지만, 부산 사투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부산의 유명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에 부산 특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아는 로컬들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부산의 문화가 가장 좋았습니다.

소이 저는 부산사람으로서 외국인들에게 부산의 문화를 소개한다면 무엇이 좋을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부산 시립 국악 관현악단의 공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통 국악, 퓨전 음악 등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포동 용

두산공원 인근을 추천하고 싶은데, 전쟁 시기 때부터 켜켜이 쌓아온 세월이 흔적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근처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이라고 있는데, 부산의 짧은 역사를 다 살펴볼 수 있고, 과거 한국은행 건물을 개조했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습니다. 산복도로의 색색깔 집들도 매력적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은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하. 가마솥에 튀기는 통닭을 시장에서 사오면 더 맛있으며, 부산에서 광안리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공연, 금정산성 축제 등 부산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축제도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는가.

카밀라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현재 2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은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취업 관련 정보, 컨설팅, 네트워킹 등 모든 것이 이뤄진 곳입니다. 사실 서울은 이것보다 더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곳이 유일하게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동시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사 서울에서 외국인 봉사활동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서울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은 아직까지 많이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빚대어 청년들을 위한 기회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많지 않지만, 앞으로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밀라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비자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부산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취업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활동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다만, 비자 조건이 다소 제한적이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거주지와 직장이 한 지역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이를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일하고 살아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이 저는 아직 기간제로서 근무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일자리와 관련된 기회 측면에서는 아직 아쉬움이 많은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가을에만 봐도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등 동시에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는 점에선 즐길거리나 먹을거리 등은 수도권 못지 않게 잘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다도 보고, 부산에서 한달살기 할 정도로 거주비용도 서울만큼 힘들지 않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이슈페이퍼 24호에 러브소피 대표님이 "서울에 비해 도전하기 참 좋은 곳"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서울은 없는게 없고, 작은 아이디어 가지고 경쟁하는 반면 부산은 아무래도 서울보다 뭐든지 늦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도전하기에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업 지원도 잘 되어 있고, 자소서 첨삭도 해주는 제도도 있고 뭔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잘되어 있지만, 정작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 힘듭니다.

카밀라 저도 소이님 말에 매우 동감합니다. 서울은 나라는 존재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경쟁이 매우 심한데, 부산은 주거비용도 서울에 비해 높지 않고, 먹고, 즐길거리가 다 갖춰져 있고, 바다보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서 워라벨을 즐기기에 딱 좋은 도시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서 일자리 구하려고 면접보면 너가 잘해야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부산은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보자 라는 느낌이 저를 부산으로 오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청년들이 계속 머무르고 활동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아울러 부산에서의 향후 계획은.

카밀라 향후 계획이라 하면, 외국인이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단 몇 년간의 계획을 묻는다면, 일단은 부산을 온전히 즐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청년들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게 지원할 가장 1순위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한국에서 남아서 일 자리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오로지 부산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자격증도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외국인들을 구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이사 저는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는 한국어를 부산에서도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 도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이 저는 부산에서 계속 살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자리 문제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왕왕 들렸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산에 살면, 부산 안에서만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 메가시티가 형성된다면 내가 어디에 사는 곳이 어디든 울산 및 경남 등의 지역으로 연계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의 청년 유출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는데, 부산에 남아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 지점을 잘 파악하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내 노후에 대한 미래를 그려보았을 때, 이 도시에서 살아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집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바라보는 부산의 모습과 그들이 느끼는 기회와 아쉬움들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이 부산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느리되 함께 가는 지역문화 창업



한국문화유산연구원(2023)
「지역문화 창업 정책 방향 연구」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창업정책의 방향

창업은 최근 일자리 정책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는 기업 경영은 이전 세대가 간직하고 있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취업 문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육아 등 개인적인 요인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외부의 요인으로 중도 퇴사가 발생하기도 하며 정년 이후의 일자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단 청년 일자리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일자리 해결 방안으로 창업 지원사업과 그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와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창업 정책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 지원이 주를 이룬다. 21세기 전후로 제조업 기반 산업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 기술 기반 산업, 대중가요, 영화와 같은 기술 기반 문화예술산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었고 이들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활발해졌다.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빠르게 성장, 발전하는 기술 기반의 창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부터 숙고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문화 창업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바로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 위기가 이 연구의 사회적 배경을 이루기 때문이다. 지역 청년들이 기술 창업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활기와 생산성은 더욱 약화 되었기에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할 방안으로 지역문화 창업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문화 창업이 단순히 산업이나 경제의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지역문화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색과 개성을 전제로 하는데 각 지역의 문화중심지, 청년 인구 접근성이 좋은 곳, 걷기 좋은 저층의 가치 있는 오래된 건축물, 지역 가치를 발굴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창업의 주요 자산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문화 창업정책 방안

보고서는 지역문화 창업 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주요 쟁점을 정책 대상, 창업 교육과정, 창업 네트워크 구축, 투자 및 융자 제도 지원으로 도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정책 참여 대상을 다양한 연령대, 고용 취약 계층, 외국인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과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보다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문화 창업의 경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 감각이나 관계 자본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축적되어 발휘되어야 한다는 특성과 이로 인해 초기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린 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전문 투자 시스템과 지원방식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 창업 및 관련 정책에 특화된 펀드 조성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개별 창업 사업체 발굴 지원모델과는 독립된, 창업 팀 결성을 통한 통합지원방식을 제시하면서 일본, 독일, 미국 세 나라의 창업 정책에서 시사점을 발굴하고 있다.

일본, 독일, 미국 창업정책의 시사점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으로 지방 소멸에 직면한 일본은 2014년 9월 도쿄 일극 중심을 시정하고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아, 일본 전체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실행할 ‘마을 사람·일 창생 본부’를 설치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지역에서 생산성이 높고 활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적 관심을 기울였는데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기업의 지역 연계 강화, 인구의 지방 이주 유인, 지방대학의 활성화가 그것이다. 또 지난 아베 내각은 지역의 자립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 경제 분석체제 제공, 인적자원 지원 강화, 재원 지원체계이다.

일본의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정부와 민간이 강력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창업가들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조건을 부여하였다.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원칙과 사회적 형평 원칙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이기에 지역 기반의 독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수평적 관계를 갖는다. 이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독일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2007년 연방 문화미디어 특보와 함께 문화창조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 잠재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 ‘문화창조경제 이니셔티브(Initiative Kultur-und Kreativwirtschaft)’의 경우 독일 문화창조경제 분야 사업체의 매출 증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독일 액셀러레이터(German Accelerator)라는 새로운 창업 지원과 성장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기업가 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도의 정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기업 돕기(Unternehmen helfen Unternehmen)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 창업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시장이나 판로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간기업과 대학도 교육,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특징은 이 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원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미국의 창업 지원정책은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혁신전략,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적 기업에 대해 창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스케일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caleUp America Initiative)는 창업 초기 단계 이후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창업 지원정책은 창업 생태계에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어린 창업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Intel, IBM, HP, Facebook과 같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위 세 나라의 창업 정책을 살펴볼 때 독일과 미국 창업 정책에 있어서는 기술 기반 창업 지원 성향이 뚜렷하였다.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독일 EXIST 프로그램, 미국의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적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전제된 기술 기반 창업의 경우,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를 조장하므로 지역문화 창업 연구의 방향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기업, 민간, 대학 등이 창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도력이 높고 지방 분권이 안정화된 측면이 있어 적용에 있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나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에 대응하여, 지역문화 자원을 유기적인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풀어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지역문화 창업 정책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지역문화 창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 산물과 같은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주체자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칭하듯이 단순 사업이나 장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감수성, 지역의 역사성,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를 소비자와 나누고 확산하는 것이므로 정주 가능한 일자리 조성, 공동체의 라이프스타일 향상, 환경과 생태계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느린, 성찰과 합의의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산하기관에서 창업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정책 분야에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지속 운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2023-202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사업 지역주관기관 공모계획(2022.12)에 따르면 전국 10개 권역에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연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고, 실제 서울·인천권에 도봉문화원, 경기권에 의정부문화재단과 평택시문화재단, 강원권에 춘천문화재단, 부산·울산·경남권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울산문화관광재단 7개소가 선정되었다. 권역단위 전문인력 양성의 규모로는 턱없이 적은 사업비이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중앙 단위에서 지역문화 창업에 대한 환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향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본격적인 시행정책과 사업을 기대하게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현안이 중앙의 지역문화 창업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지역과 중앙은 밀도 높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술 기반이건, 지역문화에 대한 것이건 위 세 나라의 사례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4. 09. ~ 11.

부산문화재단

**올 가을 공연예술의 감동으로 물든 부산,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성황리에 폐막
(10.11)**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부산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남구 문화골목, 광안리 해변 등 부산 일대에서 펼쳐졌으며 국내외 300여 명의 델리게이트와 700여 명의 예술단체, 시민 등 5만여 명이 참여한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비판 공식 프로그램은 <공연>, <네트워크>, <시민행사>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공연은 비판 예술감독단에서 엄선한 공식 초청작 40편(전막 8편, 쇼케이스 32편), 미래의 공연작품을 발견하는 도전의 무대인 비판 넥스트스 테이지 38편, 10월 5, 6일 양일간 광안리 해변에서 펼쳐진 거리예술 24편, 10월 중 비판과 연계한 부산국제춤마켓, 작강연극제, 부산원먼스페스티벌, 올해의 포커스온, B.라이징 아티스트 등 링크 작품을 포함한 200여 편의 작품이 부산 곳곳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홍티아트센터 내 프랑스 창작공간
<빌라부산> 개관(10.2)**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홍티아트센터에서 부산시와 프랑스 칸, 주한프랑스대사관이 「한국 내 프랑스 창작공간(레지던시) 빌라 부산(Villa Busan)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홍티아트센터 내에 해외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 및 작가연구실을 제공하고, 해외 입주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는 입주예술가를 위한 왕복 항공권과 전문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칸에서는 입주예술가의 한국 내 체류를 위한 체류비를 지원한다.

**개성 넘치는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9.20)**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청년주간을 맞아 9월 21일부터 9일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지하에서 '2024 청년아트페어'를 개최하였다. 청년아트페어는 39세 이하 시각 분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한다.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중 공모로 선정된 30명의 청년 예술가가 참여하였다.

광안리 바다, 거리예술로 출렁이다!(9.13)

부산문화재단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광안리 해변가에서 부산거리예술축제를 개최하였다. 거리예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담은 '거리예술의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슬로건으로 준비한 축제에서 공식 초청작 7편(해외 5편, 국내 2편)과 공모작 13편 등 총 20편의 작품이 선보였다. 또한 거리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국내최초 발명 특허 의뢰기 신발 (주)슈울즈,
부산문화재단에 기부금 2천만 원 전달(9.10)**

(주)슈울즈(대표이사 이청근)는 부산문화재단에 기부금 2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기부금 전달식은 두 기관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추진됐으며, 기부금은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정책 20주년,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다(11.12)**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토론회와 문화예술교육 사업성과 공유,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미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을 모색한다.

한강 작가,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10.11)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현재 28개의 언어로 번역, 총 76종의 책으로 출간돼 전 세계 독자와 만나고 있다.

**제1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부산에서 개막
(10.21)**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립·공립·사립 박물관과 미술관뿐 아니라 전시 유관 산업체도 참여하는 국내 최고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에서는 수집가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획전부터 실감콘텐츠 전시, 교육·체험 행사 등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널리 알리고 업계 산업 동향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반입,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 열다(10.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10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이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 현장과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정책 지원
방향 논의(9.9)**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정책에 관한 열린 세미나'를 열고, 공연·미술·문학 분야 예술인,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작품 창작·유통 관련 중앙-지방 연계 체계 마련 ▲공연·미술·문학의 지역 유통과 담론 형성, 해외 진출 지원 ▲예술단체 혁신, 예술 축제 집중 지원 ▲국공립 예술시설 특성화 ▲민간의 예술분야 투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재단-부산진문화재단-울주문화재단
협약 체결(9.9)**

금정문화재단(상임이사 이홍길), 부산진문화재단(이사장 김영옥),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과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재단 상호협력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통해 부산과 울산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프로그램 교류, 인적·물적 자원 상호 지원 및 네트워킹 확대, 유휴 공간 및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 함께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10.31)**

우리나라 유일의 기초예술 진흥 공공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의 재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1월 1일(금)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문예기금은 최초 설치되었던 1973년 사업비 3,1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4,256억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50여 년 동안 누적 4조 3,232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으나, 기금 고갈 우려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 2025년 연구비전 설정:
"실천적 연구의 연결로 미래 안착"(10.8)**

부산연구원은 "실천적 연구의 연결로 미래 안착"이라는 비전과 함께 "BBB in 2025(BIG Dream, Busan Initiative: Bridging by Practical Research)"라는 슬로건이 제시하였다. 2025년을 부산의 미래 모습을 향한 중요한 시점으로 설정하고, 실천적 연구를 통해 미래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시대, 부산 먼저 미래로 도시의 혁신적 대전환"이라는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시민행복도시로서의 부산의 미래상을 구체화했다.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군 예술인 방문 간담회' 성황리 종료(9.11)**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강원 지역의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 예술 관계자 간 교류 확대를 목표로 '2024 시군 예술인 방문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권역별(내륙, 동해안, 접경, 폐공) 8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되어, 총 238명의 지역 예술인, 예술단체,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재단의 신규 예술인 복지 사업 수립 및 향후 지원사업에 개편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7 / 2024 Winter

